
대행 스님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내다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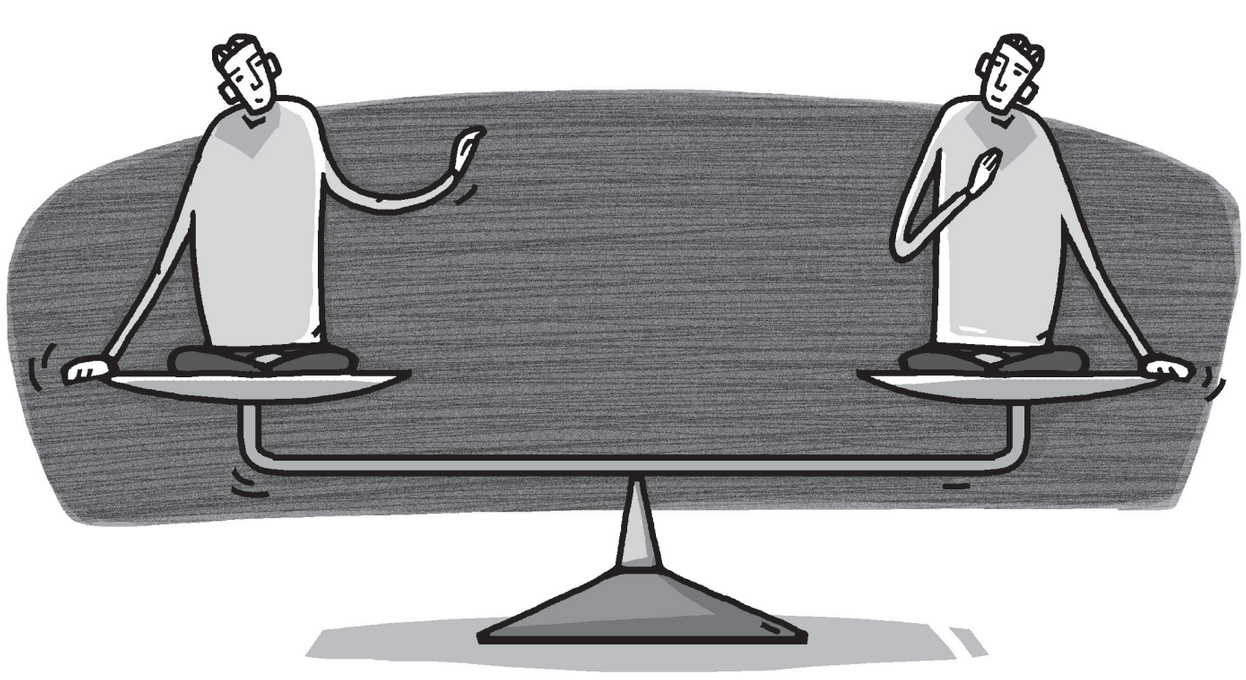
사회자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의문 났던 점이나 또 평상시 스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 관(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일체를 관해야 한다' 고 하는데 일체가 무엇이며, 무엇을 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요새 모두 화두를, 일체를 놔두고도 또 화두를 잡고 끊어질까 봐 애를 쓰는데, 일체라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 찰나찰나 화(化)해 가면서 돌아가고 있으니 일체예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듯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일체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일체" 하죠. 그러니 지금 "일체, 모두 놓고 관(觀)하라." 이런 것이지.

내가 날더러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네가 형성시켰고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네가 나를 운전해 왔어. 진화시켰어. 형성시켰어. 그러니 나를 이끌어 가지고 가는 것도 너고, 말 한 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거 그 속에 닥쳐오는 대로 놓는 것이 관하는 거죠. 그래서 맡겨 놓는다면, 앉으나 서나 바로 도량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앉은 자리에 자부처는 있는 것이죠. 자부처부터 알아야 바로 우리 마음속의 그 모든 의식 자체 생명들이 같이 화합을 해 주게 됩니다. 내 국토부터 다룰 줄 알아야, 바로 보살로 화해서 남의 국토도 내 국토와 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관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갈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태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화두야. 그런데 그 화두마저도 공했다 했거늘,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 했거늘 거기에다가 또 남의 화두까지 받아 가지고 '이게 뭣고?' 하고 먹지 못한다면 그것은 십 년, 백 년을 가도 지금 시대에는 아니 된다 이거죠. 왜냐. 전자에는 그게 씨가 먹혔지만 지금은 모두 머리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천체물리학이니 과학이니 또 지리학이니 의학이니 천문학이니 이런 것이 전체, 머리에 알음알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씨가 먹히질 않아. 밥 한 그릇 남이 준 거를 들고 '이 뭣고?' 하고선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도 공했고 그것도 공했거늘 어찌 그거를 들고 끊어질까 봐 애를 쓰느냐 이거야.


그림 · 최주현

또 좌선을 할 때도 내 안으로 관한다면 그게 같이 들리지마는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좌선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안 하느니만 못하다. 왜냐. 지금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모든 소용돌이가 찰나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구가 돌아가고 흑성이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고 사람도 돌아가고 사람의 마음도 돌아가고 고정됨이 없는데, 좌선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하루 8시간을 앉았다 하더라도 단 5분 한 것만 못하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좌선을 할 때에 관하라니까 화두를 들고 그것이 끊어질까 봐 애를 쓰고 '이게 뭣고?' 하는 게 관하는 건 줄 안다 이 소리지. 새 물이 들어오면서 헌 물은 배출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대에, 만약에 그 물을 그냥 두고 있다면 그 썩은 물을 그냥 우리가 쓰는 거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죠. 선지식들이 "위로 눈을 뜨지도 말고 아래로 내려 보지도 말고 코끝을 내려다보고 아주 정연하게 관하라." 이런 말을 했거늘, 그것은 무슨 소리냐?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내다봐라. 그리고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바로 중도에서 중용에서,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똑바로 중도에서 보라 이런 소리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해요. 요새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혼란을 일으키고 말이야, 남의 소리나 듣고. 부처님이, 석가세존이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석가세존의 몸뚱이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진짜 믿는 것은 그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항상 서리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질을 보고 끄달리지 말고 그 마음을 뚫어보기 위해서 내 마음부터 뚫어봐라 이 소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나를, 나라는 존재를 버려라. 버리는 게 아니라 맡겨 놔라. 아집을 버리고 말이야. 그것은 왜냐? 여러분이 여직껏 살면서도 고정되게 보신 게 있습니까? 들으신 게 있습니까? 또 말하는 게 있습니까? 가고 오는 게 있습니까? 먹는 것이 고정됩니까?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 그런데 자동적으로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만나는 대로 뜻과 행과 말이 나가고, 저 사람 만날 땐 저 사람 만나는 대로 뜻과 행과 말이 나가니 그건 무슨 연고냐 이거야. 그러니 나라는 게 어딨는가? 누구 만날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처는 없는 게 부처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관하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게 관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모른다면 나를 어떻게 발견을 하며, 내 습을 어떻게 녹일 수 있으며, 내가 생동력 있게 모든 생물들과, 즉 사생(四生)과 더불어, 우주와 더불어 대천세계를 막론해 놓고 내 몸뚱이 집과 대천세계의 집과 도량이 둘이 아닌 걸 어떻게 알 겁니까? 그래서 알게 되는 도리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자기부터 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진짜로 일차적으론 믿어야 한다,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둘째는 모든 일체를 거기서 해 나가니까 거기에 믿고 맡겨 놔라. 셋째, 거기서밖엔 일체를 할 수 없으니까 다가오는 대로, 아프면은 의사가 돼 주실 거고, 즉 약사가 된다 이거지. 가난하면 관세음이 돼 줄 거고. 그래서 간략하게 말한다면 부처님의 마음, 한마음 안에서 그 모든 내 몸뚱이에 있는 중생들이 화해서 보살이 천백억화신으로 나투니, 털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고 들면서 모든 중생들을 건진다 이거야, 생사에 뛰어들어서.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생사에 뛰어들듯이.

또 "몸은 내가 마음을 낼 때에 무명으로부터 애착이 생겨서 내가 병이 나는 거지. 내가 병이 나니까 일체 중생도 병들었어. 그 일체 중생이 병이 낫는다면 아마 나도 나을 거야." 하는 말은 누가 한 말이냐. 유마힐 거사와 문수보살이 대담하는 데서 나온 소리지. 그러면 우리부터 발견해서 놓고, 발견해서 관하고, 관하고 발견해서 실험하고 체험하고, 당당한 그 주장자가 섰을 때 비로소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이 전부 화한다 이거야. 그러니 마음 하나에서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나투게 되니 그 얼마나 무량수(無量壽)와 같은 것이냐 이런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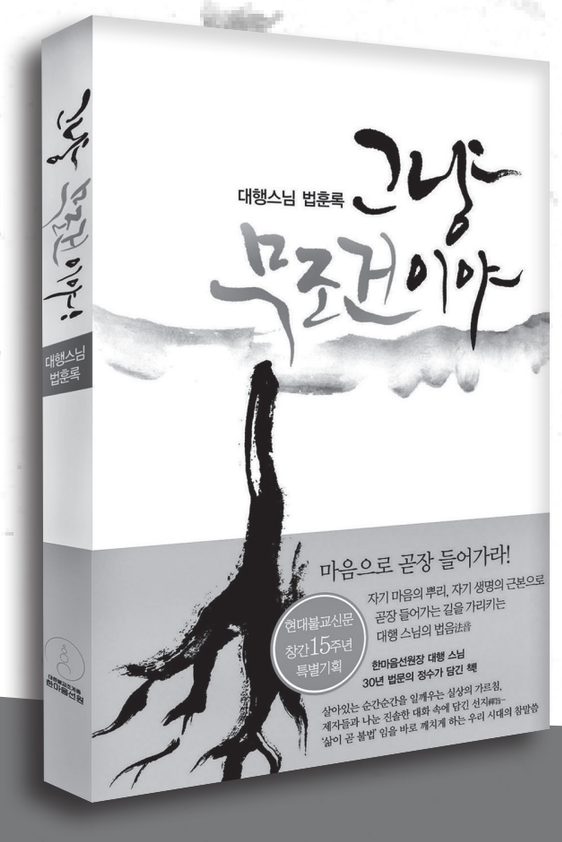
그럼으로써 보살로 화해서 바깥으로 모든 중생들의 생사에 뛰어들었으니 어찌 병이 없으랴. 보살도 어찌 아프질 않으랴. 중생들의 그 병이 없어진다면 보살 또한 병이 없어질 것이로되…. 그러니 거기에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건 문수보살이 "무슨 인연으로써 병이 생겼으며 어떻게 해야 낫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문자를 쓰기 이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자 이거야. 문수보살이 그렇게 말을 하는 데 대답한 것은 뭐냐. "무명으로부터 애착이 생겨서 내 병이 났소. 또 일체 중생이 병이 들었으니 일체 중생이 병이 낫는다면 내 병도 낫겠소." 그 대답이 그렇게 나왔다면 그 밑에 깔린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문수보살이 물었던 그 말도 밑에 깔려 있고, 유마힐 거사의 그 대답도 바로 그 백지에 깔려 있어. 그래서 백지를 볼 수 있다면 바로 무심과 유심이 둘이 아니게, 유구하게 무구하게 둘이 아닌 도리를 그대로 중용을 할 수 있고 중생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마음에서 세세생생에 보살이 배출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각(正覺)을 이루어서 부처님이 수많아진다 하더라도 불(佛)은 하나야. 그러나 양쪽 손에 돌을 들고 탁 쳤을 때 불이 일어났다가 그냥 없어지긴 했으나 그게 한데 합쳐서 하나라는 뜻이지. 만 명이다 할지라도 하나요, 억만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요, 그 하나도 이름해서 하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다 이거야. 그래서 관하라고 하는 겁니다. 관하라고 하는 건 물론, 뜻을 이루어서 배운 사람의 소견이 다 다르듯이, 소견이라고 하는 거보다도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소견이라고 하고, 아마 우리가 그 뜻을 이룬 사람은 소견도 없고 대견도 없어. 허허허. 그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